

해방기 정지용의 시와 행동

최명표*

차례

1. 서론
2. 시대와의 마찰과 침묵하는 자아
 - 2.1. '兀然'과 '傲然'의 간극
 - 2.2. '비애와 고독'의 경과
 - 2.3. '장난감 없이 자란 어른'의 변명
3. 결론

1. 서론

해방은 피지배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을 선사한다. 그들은 해방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충일하다. 더욱이 극악한 방법으로 천부적인 자유를 압살했던 일제의 패망은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형극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감격으로 다가왔다. 그간 일제의 압제를 피해 이국으로 유랑하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전선에 투신했던 전사들이 귀국하면서 민족의 해방감은 극정에 달하였다. 그러한 환희 속에서 한민족은 서둘러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주적 제도

*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를 구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정치 상황은 시인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고, 시인들은 저마다 흥분한 어조를 동원하여 해방의 환희를 노래하느라 부산하였다. 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해방의 순간을 만끽하면서, 민족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고뇌하였다. 그들의 시적 대처방식에 따라 이 기간의 민족 정서는 층위를 달리하며 형상화되었다.

한국 “최초의 모더니스트”¹⁾라고 불렸던 정지용의 움직임은 해방기의 문단에서 주목 대상이었다. 그는 『문장』의 선고위원을 지내면서 여러 명의 후배들을 등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단의 한 축이었던 모더니즘 계열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문단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의 선택에 따라 후배시인들의 행로가 달라지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당시 문단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하던 임화, 김기림 등과 동렬에 설 수 있는 중견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용의 움직임은 모호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적 치하에서의 행적과 시인이라는 입장이었다. 전자의 예로서 그는 한번도 일제에 직접적으로 대결의식을 표출하지 않았으며, 일제 말기에 친일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점은 그로 하여금 문단의 주도세력으로 자인하기보다는, 소극적 처신을 추동하도록 하여 그의 위상을 문단의 포섭 대상자로 격하시켰다. 후자는 문단의 주도자들이 제기했던 당대의 논점들에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추수하는 시인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출된 해방기의 정지용에 관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 이면에는 해방 이전에 도달했던 시적 성취에 비해, 침묵에 가까운 그의 시작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에 종전과 달리 시작품의 발표를 자제하였고, 좌우의 이념을 앞세운 문단과 상거를 유지하였다. 그의 행동은 문단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의도에 동조하는 듯한 오해를 가져왔고, 본의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재단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나름대로 정국의 추이를 살피면서 고뇌한 것은 사실이다. 식민

1)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76쪽.

지 시기부터 언어의 조탁에 공을 들였던 그로서는, 해방을 맞아 흥분된 감정을 여과없이 분출하는 시단의 경향에 동조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그의 성격이나 그가 처한 위상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이 무렵에 침묵하게 된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의 시에 함의된 바부터 통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는 초기에 고향상실감에 침잠하였다가,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소위 '산수시'의 공간을 개척하였다. 본고는 그가 상정한 세계가 해방기의 침묵을 야기한 동인이었다고 보고, 해방기 정지용의 시와 행동을 구명할 계획이다.

2. 시대와의 마찰과 침묵하는 자아

2.1. '兀然'과 '傲然'의 간극

지금까지 정지용의 시편들이 고평되는 이유는 “193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의식이나 문명에 대하여 부딪힘이 없이 당시의 생활 체험에서 얻어지는 정감을 새로운 시적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점”²⁾에 있다. 이것은 역으로 그가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의식이나 문명’을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는 남다른 절제에 기초하여 유학 체험, 고향, 가정사 등을 작품 속에 수용하면서도 감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성과는 사회와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획득한 것이다. 그의 절제심은 타인에 대한 배제를 합리화하는 원동력이었다. 정지용은 1926년에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카예 르란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식민지 종주국에 유학하는 도중에 느꼈던 식민지 유학생에 대한 차별, 고독 등에 터하여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언제나 ‘나’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

2) 채만목, 『1930년대 한국시문학연구』, 한국문화사, 2000, 141쪽.

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당대의 피압박 상태에 있던 동족들의 구체적 현실을 형상화하는데 소홀한 것은 예정된 결과였다.

일제의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정지용은 식민지의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시적 처소를 물색하느라 공을 들였다. 이처럼 “더 이상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용이 찾아낸 유일한 시적 방법이 바로 시의 완전한 객관화 과정이었던 것”³⁾이다. 정지용이 발견한 각종 시적 기교도 사실은 시대적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었으니, 그는 이때에 시와 정치간의 함수관계를 파악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그는 이마저 특유의 절제심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그 바탕에는 동양의 고전에 대한 교양이 자리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대결 국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그는 “새새끼와도 언어수작을 능히 할가 싶어라”(『이른봄 아침』)던 재기를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침묵을 선택하였다. 침묵은 “그 자체가 비타협주의의 한 형식으로서, 예술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스처”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나르시스적 폐쇄 국면으로 퇴각하는 수단이다. 정지용은 ‘비타협적인 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와의 단절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안으로 열고 겉으로 서늘하웁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⁵⁾인 양, 현실에 대한 시의 우위를 주창하며 정당화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시집의 발간이다. 정지용은 첫 시집 『鄭芝裕詩集』(시문학사, 1935)에서 예찬하던 ‘바다’를 버리고, 두번째 시집 『白鹿潭』(문장사, 1941)에서 ‘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포한 지배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스스로 고립되어 현실의 위협을 모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海峽이 天幕처럼 퍼덕이”(『바다·6』)는 바다로부터 “新羅千
年の 푸른 하늘”(『石榴』)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각종 소리로부터 격절된 공간으로, 해방될 때까지 그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모

3) 오탁번, 『한국 현대시사의 대위적 구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9, 38쪽.

4) Arnold Hauser, 최성만·이병진 역,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84, 489쪽.

5) 정지용, 『시의 위의』 『문장』, 1939. 11; 김학동 편, 『정지용전집·2』, 민음사, 1988, 250쪽. 본고의 작품은 이 전집에서 인용하고, 이하 권수와 쪽수만 표기한다.

든 인연을 차단해주었다. 그러므로 공간 이동은 “미래지향성과 전통지향성 또는 방법주의와 정신주의 사이에서 갈등”⁶⁾하는 그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노출시킨다. 그것을 일러 소위 ‘산수시’의 진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편들이 구체적 현실과의 절대적 절연 상태로 구축된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멍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회고녀! 달도 보름
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란다? 옷질 중이 여섯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兀然히 슬
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

—「長壽山·1」⁷⁾ 전문

정지용은 자신의 시적 거소를 ‘長壽山’에 마련한 채, 일제의 식민 통치가 자아내는 암울한 현실을 감내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칩거는 동양적 정신주의의 구축이라고 운위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곳이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허구적 세계라는 점이다. 그는 그곳에서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짐’,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새도 울지 않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재 상황을 열거하며 존재의 침묵 상태를 지속하였다. 이처럼 정지용은 “肉體없는 寥寂한 饗宴場”(「崑崙峯·1」)의 고독한 경지를 형상화하는데 능란하다. 그는 산중에 편재하는 소리들을 차례대로 소거하여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를 빚는다. 그것은 ‘슬픔도 꿈도 없이’ 이루어진 인공적인 적멸의 상태이다. 구체적 현실과 상거를 먼 관념적 공간은 “鬼神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모퉁이”(「白鹿潭」)로서, 세상 사람들과 소리로부터 차단된 곳이다. 소리는 존재의 증명표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長壽’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잡음이 삭제되어야 한다. 그곳은 세계와의 단절감

6)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출판부, 1990, 377쪽.

7) 『문장』, 1939. 3; 『정지용전집·1』, 137쪽.

을 질료로 구성된 허상으로, 소리가 투입할 수 없는 침묵의 공간이다. 그곳의 의미는 “식민지 말기의 현실 위에 부유하는 고립무원의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자신을 위협하고 또는 포섭하려는 세계에 대해 저항하지도 혹은 투항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⁸⁾는 점에 국한될 뿐이다. 그가 현실의 제반 국면을 외면하고 절대 고독을 추구하게 된 동기가 ‘長壽山’이란 시체에 은닉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 단절한 채 고요한 산중의 시적 공간에서 ‘兀然히’ 견디며 침묵하던 정지용이 해방공간에 적응하기는 난망하였다. ‘바다’의 개방성에 압도된 나머지 “아모도 없는 나무 그늘 속”(「피리」)으로 도피한 그였기에, 산과 바다의 중간에 있는 해방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의 광장 공포증은 민족 구성원들과 해방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훼방하였다. 그러나 해방공간은 식민 당국에 의해 제거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정지용에 의해 소거된 소리도 고유한 음색을 되찾는다. 모든 것들이 원래의 위치를 찾아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곳이 해방공간이다. 설령 그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현장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을지라도, 산중에 기거하느라 처분했던 현실 감각을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그에게는 애초부터 정치적 신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이념의 충돌 국면이 당혹스러웠다.

백성과 나라가
夷狄에 팔리우고
國廟에 邪神이
傲然히 앉은지
죽엄보다 어두운
嗚呼 三十六年!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

8)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재성』, 소명출판, 2000, 183쪽.

허울 벗겨주고
 외오 돌아섰던
 山하! 이제 바로 돌아지라.
 자취 잃었던 물
 옛 자리로 새소리 흘리어라.
 어제 하늘이 아니어니
 새론 해가 오르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

—「그대들 돌아오시니」⁹⁾ 부분

정지용은 이 작품을 천주교회당의 임시정부 요인들 앞에서 낭독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한번도 일제에 저항하지 못한 그가 직접적으로 일제에 대항했던 귀국 인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는 “始終一如히 반탁 투쟁에 변절 없는 분은 大白凡翁뿐이시다”¹⁰⁾며 김구에게 최경어를 사용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여운형을 존경하여 설정식의 시집평 말미에 ‘무심 여운형 선생 작고하던 날’¹¹⁾이라고 부기하여 애도를 표하였다. 이전부터 ‘長壽山’에 시적 거소를 마련하고 하산하지 않은 채 해방을 맞은 그가 ‘외오 돌아섰던’ 산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허사이다. 일찍이 “나의 生活은 일절 憤怒를 잊었노라”(「時計를 죽임」)고 선언했던 그가 ‘夷狄’에게 억류당했던 ‘三十六年’에 분노하는 것도 어색하다.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거세하고 ‘長壽山’에서 은거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의 소지자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분노’를 운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작품에 장치된 ‘憤怒’는 후렴구처럼 반복된 ‘그대들 돌아오시니/피 흘리신 보람 燦爛히 돌아오시니!’에 의해서도

9) 『혁명』 창간호, 1946. 1; 『정지용전집·1』, 159-160쪽.

10) 정지용, 「남북 <회담>에 그치라?」; 『정지용전집·2』, 365쪽.

11) 정지용, 「『葡萄』에 대하여」; 『정지용전집·2』, 310쪽.

고조되지 않는다. 이 구는 음성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일 터이지만, 대상에 압도된 그의 심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할 뿐이다. 또 그것은 정지용이 “시는 언어의 구성이라기보다 더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 혹은 旺盛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¹²⁾라고 말했던 바와 상위하다. 이 공백을 채울 길이 없었기에, 그는 해방기의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여 시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어찌할 수 다시 어찌할 수 없는
길이 <로마>에 아니라도
똑바른 길에 通하였구나.
詩도 이에 따라
거칠게 우들우들 아름답지 않아도 그럴 수 밖에 없이
거짓말 못하여 덤비지 못하여 어찌하랴.

—「無題」¹³⁾ 전문

이 작품이 1949년 1월에 발표된 사실을 상기할 때, 정지용의 고뇌는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는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민족을 충격한 해방의 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똑바른 길에 通’한 민족의 해방이 수반하는 혼란상태를 따라 시도 ‘거칠게 우들우들 아름답지 않아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수긍한다. 다만 ‘거짓말 못하여 덤비지 못하여 어찌하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사정을 변명하고 있다. 시대 상황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이 무렵의 애매한 행적을 살펴보면 금세 판가름된다.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출범식장이었던 조선문학자대회(1946. 2. 8-9)에서 박세영과 함께 「조선 아동문학의 현상과 금후의 방향」을 보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아동문학분과위원장으로 등재되었다. 또 그는 동맹에서 주최한 제1회 문예강연회(서울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945. 9. 29)에서 시를 낭독하였다. 비록 그가 동맹의 행사에 소극적

12) 정지용, 「시의 옹호」, 『문장』, 1939. 6; 『정지용전집·2』, 243쪽.

13) 정지용, 「산문」, 1949. 1; 『정지용전집·1』, 163쪽.

으로 참여했을지라도, 자신의 명의를 등재시키고 강연에 참가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시기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나비」) 나섰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처신을 두고 “본의 아니게 조선문학가동맹에 등재되어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이 정지용의 비극이 시작되는 한 단초가 되었다”¹⁴⁾고 옹호할 일은 아니다. 그의 남북이 비극이라면, 그 단초는 그가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지용은 이념의 대결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점은 이 시기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그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 무렵에 발표된 글을 읽어보면, 동맹의 개념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일례로 그는 신탁통치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한 시절에 “일률로 조선 민족이랄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이라는 어의의 품위를 엄격히 규정하기 위하여”¹⁵⁾ ‘인민’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은 ‘인민’뿐이고, 권력의 비호를 받던 토착 지주와 자본가는 ‘인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동맹의 계급적 논리와 흡사하다. 그의 “인민이 아니고서 또는 완전히 인민 계열에 전락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적 신념이 육체적 실감까지 투철할 수가 없을까 한다”¹⁶⁾는 주장도 동맹의 노선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인민 진영의 원리가 민족 해방의 원리가 되는 것이요 조선 통일 자주 독립의 공리가 되는 것”¹⁷⁾이라고 주장하며 반탁을 공식주의라고 공격하는 좌익측에 분노한 대목에 유의하면, 민족 구성원들을 범박하게 ‘인민’이라고 총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호한 용례는 ‘인민’에 내재된 계급적 성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그의 소박한 인식을 드러내준다. 그것은 식민지시대의 ‘兀然히’ 견디던 은일 정신을 해방을 맞아서도 ‘傲然히’ 견지한 그의 인식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4)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159쪽.

15) 정지용, 「민족 해방과 공식주의」; 『정지용전집·2』, 385쪽.

16) 정지용,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싸움」; 『정지용전집·2』, 391쪽.

17) 정지용, 「민족 해방과 공식주의」; 『정지용전집·2』, 385쪽.

2.2. '비에와 고독'의 경과

1930년대에 김환태는 정지용의 생활습관으로부터 천재성을 연역한 바 있다. 그는 대학 후배의 입장에서 정지용의 일상적 습관들을 열거한 뒤에, 천재들이 지닌 특징으로 “심한 마음의 동요”를 꼽았다. 동요는 언제나 “정밀과 균형을 동경하는 것”이므로, 천재는 “비에와 고독”을 숙명으로 타고난 불행한 족속에 속한다. 따라서 천재시인 정지용은 ‘정밀과 균형을 동경’하는 ‘마음의 동요’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이나 변모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여 줄는지 모르는 미완성의 시인”¹⁸⁾이라는 것이다. 그의 평문은 지인에 의한 인상주의적 비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예리하다. 그것은 정지용의 시적 변모 가능성을 예언하고, 그를 ‘미완성의 시인’으로 규정한 점이다. 궁교롭게도 그의 예상은 현실화되어 정지용은 한국전쟁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영원히 ‘미완성의 시인’으로 남았다.

정지용이 해방기에 문단 활동을 소홀히 한 이유는 ‘바다’를 소재로 삼았던 일련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이 작품들에서 추구한 묘사적 이미지는 자의식을 철저히 사상시켜 세계를 일원론적 시각으로 인식한 증거이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해방정국에서 그에게 혼란을 야기한 원인이다. 이미지는 시인의 구성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변형되는데, 이때가 이미지가 구성되는 감각의 강렬함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때”¹⁹⁾란 점에서, 해방공간은 그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문단에 새롭게 등장한 전위시인들을 가리켜 “8·15 직후 자까다비에 병정구두에 신발도 똑똑히 신지 못한, 징용에서 풀린, 감옥에서 나온, 징병, 학병에서 탈주하였던 젊은 놈들이 튀어나와 旗를 들고 시를 썼다”²⁰⁾고 비난하며 문단 세력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친일시 「異土」(『국민문학』, 1942. 2)를 발표한 전력

18) 김환태, 「정지용론」, 『삼천리문학』, 1938. 4; 문학사상자료조사연구실 편, 『김환태 전집』, 문학사상사, 1988, 108쪽.

19) Wilhelm Dilthey,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체험』, 예림기획, 1998, 98쪽.

20) 정지용, 「『葡萄』에 대하여」; 『정지용전집·2』, 309쪽.

때문에 '젊은 놈들'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었던 그는, 작품 활동보다 언론기관 등의 문학 외적 활동에 치중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경력은 그에게 문제사태를 비판할 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인의 견해와 역사적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는 시인의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주선하였다. 당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던 친일파 청산과 관련하여 정지용은 “혁명을 거부하고 친일반역도 숙청을 할 도리 있거든 하여 보소”²¹⁾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또 신탁통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3년여를 허송하며 민족의 열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38선을 무찌를 자가 양군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진영의 조선 인민층”²²⁾이라고 주장하여 좌우측 문단의 주장과 상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직파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해방기 문단의 변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정국의 대결국면을 조종하는 이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오류이기도 하다. 그는 “오직 예술문화의 순수과 영구를 조준하기 위하여 시는 절로 한층 고고한 자리를 잡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에 집착할 뿐이다”²³⁾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바뀌었다고 하여 그것을 철회하며 '징병, 학병에서 탈주하였던 젊은 놈들'이 판치는 문단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일제의 통치 하에서는 산중처소를 장만하여 '兀然히' 견뎠던 정지용이다. 그것은 그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점을 수락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념과 상처되는 문단 활동을 거부해버렸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고향을 찾아갈 기회가 마련되자, 귀향 대신에 남해안을 유람하도록 유인한 동인이다²⁴⁾.

생활이 없는 사람에게 허무한 답쌓임—내게 대체 이 치다꺼리가 언제 끝

21) 정지용, 「민족반역자 숙청에 대하여」; 『정지용전집·2』, 368쪽.

22) 정지용, 「남북 <회담>에 그치라?」; 『정지용전집·2』, 365쪽.

23) 정지용, 「시와 발표」, 『문장』, 1939. 10; 『정지용전집·2』, 249쪽.

24) 정지용의 기행문 「남해오월점철」(『국도신문』, 1950. 5. 7-6. 28)은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되어,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날까지 연재되었다.

이 나는 것입니까?

이 답쌓임에 놀리어 거저 죽어야 할지 혹은 마른 조개껍질처럼 한 개의 생활이 아니라 한 개의 존재로서 역사의 물결에 마쇄(磨碎)되어버릴 것인지 또는 내려누르는 담천(曇天)을 떠받아 혈이고 치오르는 그 많은 독수리떼의 하나이어야 할지—내가 회의자로 회피하기까지 갈 것이 아닌 줄을 구태여 모르는 바이 아닌 것은 현실과 사태가 8·15와 38선으로 하여금 바짝 들이 몰아다 육박하였으므로 우리는 회의도 회피도 다소 시적 향락이 있을 수 있었던 허무에의 스페이스도 있지 않아 나는 다만 허덕치덕할 때 역사는 그 자신이 한 개의 천재이었음을 노현(露顯)한 것입니다.²⁵⁾

위와 같이 정지용이 극심한 허무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식민지 말기에 다다랐던 시적 경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전대의 이념지향적이고 현실추수적인 경향의 시풍을 지양하고, 감정의 절약을 통한 언어의 미적 질감에 주목하여 절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후에 그가 추구했던 동양적 정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찬양 일변도의 성과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지용이 시대 상황을 외면한 채 “정신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은 혼탁한 현실로부터 시인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²⁶⁾는 점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체험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대체로 시인의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학 경향에도 좌우된다”²⁷⁾는 점에서, 그는 해방기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상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말하자면 그는 ‘개인적 성향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문학 경향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정지용은 ‘거저 죽어야 할지 혹은 마른 조개껍질처럼 한 개의 생활이 아니라 한 개의 존재로서 역사의 물결에 마쇄되어버릴 것인지 또는 내려누르는 담천을 떠받아 혈이고 치오르는 그 많은 독수리떼의 하나이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모든 문제를 역사적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렸다.

25) 정지용, 「序 대신—시인 琇馨께 편지로」; 『정지용전집·2』, 318쪽.

26)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219쪽.

27) Jan Mukařovský, 「시인이란 누구인가」, 박인기 편역, 「작가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7, 76쪽.

이러한 태도는 그가 '유물사관과 순수문학'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마치 유물사관을 즉시 <무신론>으로 속단하는 편견적인 유신론자처럼, 그러므로 인류가 먹고 입고 살아 온 법칙과 사실의 역사에 대하여는 신앙인도 예술가도 허심탄회로 연구하여 신앙과 예술에 막대한 공헌을 하여야 할 지적 책무를 부담할 것이지 학술에 대한 부당한 중상과 속단을 피하여야 할 것"²⁸⁾이라고 대답하여 학문적 차원으로 환원시킨 것과 유사하다. 문제의 초점을 역사나 학문으로 돌리는 그의 자세는 예민한 질문에 대한 회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 외의 다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그의 교양을 반증한다. 것처럼 정지용의 정치적 무감각은 소문난 바이다. 평생 시업에 복무했던 그에게 정치적 이념으로 충만한 해방공간은 생소하였다. 그에게 시는 "시 아닌 것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진 예술적 결정품"²⁹⁾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종전의 순수시를 멀리하고, 시와 정치의 상관성을 찾느라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감각을 갖추지 못한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자기모순을 결과하기 마련이다.

일제시대에 내가 시나 산문이니 죄그만치 썼다면 그것은 내가 최소한도의 조선인을 유지하기 위하여였던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방 덕에 이제는 최대한도로 조선인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는데 어떻게 8·15 이전 같이 矮小縮한 문학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이라?

자연과 인사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문학에 간여하여 본 적이 없다.

오늘날 조선 문학에 있어서 자연은 국토로 인사는 인민으로 규정된 것이다.

국토와 인민에 흥미가 없는 문학을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나?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순수시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순수시인이라고 의식하고 표명한 적이 없다.

시춘기에 연애 대신 시를 썼다. 그것이 시집이 되어 잘 팔리었을 뿐이다. 이 나이를 해가지고 연애 대신 시를 쓸 수야 없다.

28) 정지용, 「평화일보 기자와 일문일답」; 『정지용전집·2』, 408-409쪽.

29) 김용직, 「순수와 기법—정지용」, 『한국현대시인연구·상』, 서울대출판부, 2000, 95쪽.

사춘기를 훨씬 지나면서부터는 일본놈이 무서워서 산으로 바다로 회피하여 시를 썼다.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순수시인 소리를 듣게 된 내력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향을 다소 받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좋지 않은 영향이니 버리는 것이 좋을까 한다.³⁰⁾

정지용이 “순수시를 지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점과 바다로, 산으로 또는 신앙의 세계로 시적 표현의 대상을 이동하면서까지 유랑의식의 표출로 방어 메커니즘적 자세를 취했던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책”³¹⁾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해방기에는 ‘어떻게 8·15 이전 같이 矮小龜縮한 문학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일까’고 반문하면서, 자신을 ‘순수시인’으로 부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시국의 형편에 맞추어 ‘국토와 인민에 흥미가 없는 문학’을 지양하고, 시적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그는 ‘자연과 인사에 흥미가 없는 사람’으로 과거적 존재였다. 스스로 “민족문학의 노선과 민족의 정치 노선이 서로 이탈될 수 없다는 것이 문학을 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중상적 구실이 될 수 없는 것”³²⁾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유물사관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 문제는 나한테 과분한 숙제”(『산문』)라고 말하여 자기발언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지용은 ‘민족문학의 노선과 민족의 정치 노선’을 합치하려는 ‘과분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중, 정국이 급변하면서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했던 전력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1949년 11월 4일 국민보도연맹에 자수하여 문학적 ‘전향’을 선언하며 정신적 방황을 정리하였다³³⁾. 그의 가맹은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으로는 처음이라서 도하 신문은 각별히 취급하였다.

30) 정지용, 「산문」, 「문학」, 1948. 4-5; 『정지용전집·2』, 219-220쪽.

31) 정의홍, 「정지용의 시연구」, 형설출판사, 1996, 250쪽.

32)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1948. 10; 『정지용전집·2』, 275쪽.

33) 김기진,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77쪽.

나는 소위 야반도주하여 38선을 넘었다는 시인 정지용이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그러한 중상과 모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내가 지금 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한 개의 시민인 동시에 양민이다. 나는 23년이라는 세월을 교육에 바쳐왔다. 그래서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 신분보호를 요청했던 바,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어 오늘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볼까 한다.³⁴⁾

그는 '중상과 모략'을 받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으나,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보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 정지용은 어중간한 자세로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조연현으로부터 "씨의 감각도 언어도 씨의 어떤 정신적 필연성이나 심장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씨의 수공의 노력과 연마에서 나온 것"(『수공업예술의 말로—정지용씨의 운명』, 『평화신문』, 1947. 8. 20-21)이라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힐난을 받았다. 그의 비판은 합리적 논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지용이 조선문학가동맹에 이름을 올리고 우익측의 문학 조직에 무관심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한편 좌익측의 김동석은 정지용이 임시정부 인사들 앞에서 시를 낭독한 사실을 지칭하며 "그대가 맞이한 몇 사람 정치가보다도 이마에 땀을 흘려 낫을 잡는 사람, 햄머를 휘두르는 사람이 시인을 밥 먹이고 옷 입히지 않았던가"(『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1947. 3)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 속에는 정지용이 우파 문단에 적을 두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색도 내재되어 있다. 동맹원으로서의 활동에 소극적이던 정지용이 우파 진영에 가담하게 된다면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수반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이처럼 좌우측으로부터 지탄받았던 그의 존재 가치는 당시 문단의 지위를 추측케 해준다.

정지용의 극적 변신은 해방기 정세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듬해 10월 정부는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문단에

34) 『동아일보』, 1949. 11. 5

서는 1948년 12월 우익측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민족정신 앙양 전국 문화인 총궐기대회’를 주최했고, 이듬해 12월에 한국문학가협회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남북은 분단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념을 추종하는 작가들을 회유하거나 탄압하였다. 이런 판국에 정지용의 전향 선언이 나온 것이다. 그는 한국문학가협회에 가입하여 『문장』의 선고위원을 거치는 동안에 배출했던 후배시인들과 조우하는 한편, 오랜 문우였던 이태준을 향해 “38선이 장벽이 아니라, 자네의 월북이 바로 분열”³⁵⁾이라며 월남할 것을 재촉하였다. 해방 후 좌우의 문학단체로부터 관심과 배제를 동시에 받았던 그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 예기치 않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로써 그의 ‘비에와 고독’으로 점철된 “危殆 千萬 나의 마흔아홉해”(『曲馬團』)는 다시 한번 이념의 와중에 휩쓸리고 말았다.

23. ‘장난감 없이 자란 어른’의 변명

주지하다시피, 정지용의 첫 시집 『鄭芝溶詩集』에는 다수의 동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의 동시는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앞서 이수한 학습 결과로,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 편편마다 배어 있다. 동시는 조실부모한 개인사적 사실과 연루되어 그에게 “육친의 없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력한 정신 공간”³⁶⁾이었다. 이 점에서 정지용의 동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시가 아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동시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온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자상을 치료하기 위한 자기최면적 발언이었다. 시인은 동시를 발표하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만족 상태를 체험할 목적으로 시가 아닌 동시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동시에 나타난 시간은 철저히 과거시제에 입각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과거에 정지되면

35) 정지용, 「소설가 이태준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 『이북통신』, 1950. 1; 『정지용전집·2』, 416쪽.

36) 최명표, 「‘없음’의 구어적 표현방식—정지용 동시론」, 『아동문학의 옛길과 새길 사이에서』, 청동거울, 2007, 112쪽.

서, 정지용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추구하기보다는 “부형이 울든 밤”(「병」)을 그리워하는 회귀적 사유방식을 고수하게 되었다. 해방기에 그가 문단의 움직임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신진들의 등장을 비난한 사실도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지용의 과거지향적 시간의식은 그를 호명한 해방기의 시제와 맞지 않았다. 일제에 의한 강점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정지용의 시간의식이 일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해소된 해방공간에서는 동시의 시제도 달라져야 했다. 해방은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전제하므로,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동시는 대상의 특수한 성향 때문에 시보다 더 현재의 순간을 중시한다. 따라서 집요할 정도로 과거시제를 고수하는 정지용에게 동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에게 동시는 가족사적 사연을 토로하거나, 삭제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 점은 그가 배출한 청록파 시인들이 이 시기에 활발히 동시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그들은 해방기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들이 나아갈 바를 명량한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정지용에게 동시는 시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습작 과정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중견시인의 반열에 오른 그가 후배시인들과 동열에 서기에는 격이 맞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초기 외에 발표한 동시작품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또 정지용의 독특한 고향의식은 동시의 세계와 부합되기 어려웠다. 고향은 그에게 “그리던 고향은 아니리뇨”(「故郷」)라며 부정하기 이전의 관념대로 존재하였다. 초기부터 잃어버린 고향의 ‘향수’에 집착한 그였기에, 해방으로 되찾은 ‘고향’의 현재를 시화할 수 없었다. 그의 고향은 해방을 맞아 ‘지금-여기’에 되찾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고향의 공간 표지보다도 정서상의 심리기제가 중요했던 것이다. 고향을 되찾고도 부정하는 그의 시간의식은 시는커녕, 동시의 창작도 불가능하게 만든 심리적 동인이었다. 그는 정서의 원형으로 재현되어야 할 고향을 부정한 전과 때문에, 원시적 질서를 추구하는 동시의 세계로 귀환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장

난감 없이 자란 어른”³⁷⁾으로 자처하며, 아동기의 궁핍상을 추억하는 일조차 공공연히 싫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세대가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이지, 그에게 특별히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 태도는 현실과 동화되지 못한 그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가 성장기의 추억을 유별나게 개별화하는 한, 동심의 형상화를 표방하는 동시의 창작에 나설 수 없었다. 그는 문단 활동을 수반하는 작품의 발표 대신에, 아동 작품의 심사로 시대와 마찰하는 자아의 훼손을 지연시키고 있었을 뿐이다³⁸⁾.

어린이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시니 나는 소년적 고독하고 슬프고 원통한 기억이 진저리가 나도록 싫어진다. 다시 예전 소년시절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늙어가는 것이 차라리 좋지, 예전 나의 소년은 싫다. 조선에서 누가 소년시절을 행복스럽게 지냈는지 몰라도 나는 소년적 지난 일을 생각하기도 싫다.

인생에 진실로 기쁨이 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뿐이요, 어린이들의 기쁨이란 순수하게 기쁜 것이다.

불행하게도 조선에 태어나서 기쁨을 빼앗긴 어린 시절에 나는 마침내 소년이 없고 말았으니 청년기도 없었던 것이요 애초에 청춘이 없었으니 말하자면 노년도 없이 우습게 쇠약하여 죽을 것 같다.³⁹⁾

37) 정지용, 「장난감 없이 자란 어른」; 『정지용전집·2』, 351쪽.

38) 박태일은 「새 자료 발굴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한국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83-145쪽)에서 「짜이 좋은 작품들」(『소학생』, 1947. 8), 「작품을 고르고서」(『어린이나라』, 1949. 5), 「작품을 고르고서」(『어린이나라』, 1949. 6), 「반성할 중대한 재료—특히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소학생』, 1949. 7), 「평어」(『여자중학생 문예작품집』, 교육주보사, 1949), 좌담 「우리들의 설맞이 하던 이야기」(『어린이나라』, 1949. 1), 「어린이와 돈」(『소학생』, 1949. 5), 「어린이날 5월 5일」(『어린이나라』, 1949. 5), 시 「椅子」(『혜성』 창간호, 1950), 「시집 『얼굴』을 보며」(정진업 시집 발문용 육필원고) 등의 수필 2편, 심사평 5편, 좌담 1편, 시 1편, 육필원고 1편을 발굴하여 논문의 말미에 소개하였다. 또 그는 「정지용의 미발굴 동요 '넘어가는 해'와 '겨울스밤」(위의 책, 146-153쪽)에서 「신소년」(1926. 11)에 발표되었던 동시 「넘어가는 해」와 「겨울스밤」 등, 2편의 전문을 공개하였다. 본고에서는 박태일이 공개한 작품들을 원용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39) 정지용, 「대단치 않은 이야기」, 『아동문화』, 1948. 11; 『정지용전집·2』, 427쪽.

보통학교에 다니는 동안 홍수로 인해 정지용은 가산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한 가난은 그의 성장 과정을 억압하였고, 자존심에 상처 받는 등 심리적 자상을 입게 되었다. 그의 동시에 유달리 가족 모티프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소년적 고독하고 슬프고 원통한 기억'을 생애 내내 잊지 않으며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유년기로의 귀의를 부정할 만큼, 그에게 각인된 상흔은 깊었다. 그런 연유로 해방기에 정지용은 '불행하게도 조선에 태어나서 기쁨을 빼앗긴 어린 시절'을 반복하고 있는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기성세대들이 아동들에게 불우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 배경을 "민족과 사회적 위치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성"⁴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이 무렵에 발표한 잡문들이 특별히 주의를 끌지 못하는 이유도, 기성인들의 책임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아동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 작품의 선별 기준도 "어른 흉내 낸 것 어린이의 생각답지 않은 것을 철저히 배척"⁴¹⁾한다는 등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어린 시절에 나는 마침내 소년이 없고 말았으니 청년기도 없었던 것이요 애초에 청춘이 없었으니 말하자면 노년도 없이 우습게 쇠약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후대의 아동들에게 '소년'을 되찾아주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아동문단도 좌우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념의 충돌을 마다하는 정지용의 활동 반경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가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동문학 잡지의 선고작업이 심리적 만족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동시작품의 심사가 아니라 아동들의 작문을 심사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성취감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해방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40) 정지용, 「반성할 중대한 재료—특히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소학생』, 1949. 7; 박태일, 앞의 책, 92쪽.

41) 정지용, 「작품을 고르고서 (4)」, 『어린이나라』, 1949. 5; 박태일, 위의 책, 129쪽.

인정하지 않는 그의 시간의식이 초래한 결과였다. 해방은 정지용에게 단순한 정치적 의미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는 이 무렵에 발표한 시편들에서 해방의 환희를 절실하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고유의 정서를 회복하게 된 기쁨도 표현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일관된 신념을 앞세우며 각종 집회와 운동에 적극 가담한 모더니스트 김기림의 행적과 구별된다. 그는 향수와 결별하지 않은 채, ‘兀然히’ 그리고 ‘傲然히’ 해방정국의 분주한 움직임을 관망하다가 한국전쟁을 맞고 말았다. 이처럼 해방기의 정지용은 마치 “모오닝코오트에 禮裝을 갖추고 大萬物相에 들어간 한 壯年紳士”(「禮裝」)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아조 외로운 나그네”(「슬픈 偶像」)였다.

3. 결론

정지용은 시의 심미적 자율성을 자각한 최초의 시인이었다. 그가 한국 시단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전대의 성향과 구별되는 그의 시적 성취의 영향으로 감정 조절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시어의 중요성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점은 그의 시세계를 거론할 때마다 전제되어야 할 문학적 평가이다. 그는 초기시에서 보여주었던 이미지즘적 경향을 초월하여 일제의 폭압이 극정에 달하던 1940년대에 이른바 ‘산수시’에 도달하였다. 그 세계는 일제에 의해 조성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그의 시적 신념을 지켜주기에 적합하였다. 그는 동양적 은일의 정신에 바탕하여 자신을 억압하는 외적 조건들이 제거될 때까지 ‘兀然히’ 견뎠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 현실과 단절한 채 ‘長壽山’에 칩거했던 경험은 결과적으로 해방기의 문단 활동에 장애가 되었다. 그의 소극적인 행동은 좌우측 문단으로부터 비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적 변모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성품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요구하던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순수예술’

을 고집하는 문학관으로 나타났다. 이 무렵에 그는 이념과의 마찰을 피하여 아동문학 부문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아동 작품의 심사와 잡문의 발표에 그쳤다. 정지용이 해방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한 원인은 식민지시대의 말기에 구축했던 시적 공간의 관념성에 있다. 그런 태도는 일제의 폭압이 사라진 해방공간에서 그를 현실과 유리된 채 살아가도록 견인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이 시기에 시작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적 전환을 피하지 못하고 비극적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핵심어: 해방기, 은일, 침묵, 변신, 아동문학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학동 편, 『정지용전집·1-2』, 민음사, 1988.

<단행본 및 논문>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김기진,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재성』, 소명출판, 2000.

김용직, 『한국현대시인연구·상』, 서울대출판부, 2000.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출판부, 1990.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김환태, 『정지용론』, 문학사상자료조사연구실 편, 『김환태전집』, 문학사상사, 1988, 106-115쪽.

박태일, 『한국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양왕용, 『정지용시연구』, 삼지원, 1988.

오탁번, 『한국 현대시사의 대위적 구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9.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정의홍, 『정지용의 시연구』, 형설출판사, 1995.

채만묵, 『1930년대 한국시문학연구』, 한국문화사, 2000.

최명표, 『아동문학의 옛길과 새길 사이에서』, 청동거울, 2007.

Bowra, Cecil Maurice, 김남일 역, 『시와 정치』, 전예원, 1983.

Hauser, Arnold, 최성만·이병진 역,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84.

Mukařovský, Jan, 『시인이란 누구인가』, 박인기 편, 『작가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7, 75-98쪽.

<Abstract>

Jeong Ji-yong's Poem and Behavior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Choi Myoung-pyo

As the first modernist in Korea, Jeong Ji-yong was also the first poet who awoke to the aesthetic autonomy of a poem. His influence on the Korean poetic world is magnificent. The impact of his poetic achievement, distinguished from the traits of the previous era, aroused the need for the control of emotion, and the importance of poetic language began to gain attention. Transcending the imagism tendency that he demonstrated in early poems, he reached so called 'landscape poetry' beginning in the 1940s when the repression of the Japanese rule was at its peak. The world was appropriate for protecting his poetic faith from the violent situation created by Japanese rule. He waited for the external conditions oppressing him to be removed based on the Oriental spirit of reclusiveness.

However, such experience hindered his activities in the literary circl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is passive behavior not only caused him to be criticized by the right and left wing literary circles, but also disabled his ability to pursue poetic transformation. This was oriented by his personality and views, and they were shown as a literary view that held fast to 'pure art' without admitting the unavoidability of the then situation in which a specific political faith was required. Around this period, he focused on the children's literature field, avoiding the friction of ideology. However, it merely ended up with the announcement of miscellanea. This is because of the ideality of the

poetic space that he built during the later colonial period. Such an attitude caused him to become separated from reality during liberation when the repression of the Japanese rule had disappeared. This led him not to begin a poem creation activity during this period, and to face a tragic situation, failing to pursue poetic completion.

- Key words: liberation period, spirit of reclusiveness, silence, transformation, children's literature

* 이 논문은 2009년 1월 30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